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정면돌파사상과 전략,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총진군의 불길기 새차게 타변지고 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가 6월 7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치국회의에 참가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내각부총리들과 일부 도당위원장들, 위원회, 성책임일꾼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나서는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다.

첫째의정으로 나라의 화학공업을 전망있게 발전시키는데 나서는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구조를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지속적인 발전계획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은 공업의 기초이고 인민경제의 주타격전선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 당이 화학공업을 금속공업과 함께 자립경제의 쌍기둥으로 내세우고 당 제7차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탄소하나화학공업을 창설할데 대한 방침



을 제시한 후 그 사업을 본격화하여온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위원회에서 화학공업발전의 핵심사항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과 비료생산능력조성문제를 취급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갈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가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의 과학기술적담보와 경제효과를 재검토심의를 한 과학그루비의 사업정형과 화학공업부분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화학공업발전의 새 활로를 열어놓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분이 먼저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비료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며 이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데 대하여서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카리비로 공업을 창설하는데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존화학공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과 당면목표를 제시하시고 새로운 원료에 의거하는 화학공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의 부문구조를 완비하고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기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집약형, 개발창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는것이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의정과 둘째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셋째의정으로 현행 당사업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규약상문제들을 일부 수정하고 당규약개정안에 반영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비준하였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넷째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는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 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 힘있게 추진

삼지연시를 더욱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하여 펼쳐나선 건설자들이 3단계공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천수백동의 건물골조공사를 결속한데 맞게 여러종의 마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토대를 갖추어 방대한 건설대상을 빠른 시일에 완공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가고있다. 이

와 함께 지대정리도 적극 진척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연속공격, 계속전진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지휘일꾼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에서 기수가 되어 내달리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성, 중앙기관련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려단에서는 공적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돌격전진이 과감히 벌어져 대부분의 려대, 대대가 맡은 살림집과 공공건물미장공사를 성과적으로 계속하였다. 한편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지형조건이 불리한 개소를 정리하기 위하여 3만여㎡의 토량을 처리하고 4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어 공원구획을 형성함으로써 지난 5월 공사수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금 민족의 생산 백두산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려일 로력적위훈을 세우는 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속에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공사는 계속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본사기자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 찬양

학생소년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시며 미래의 혁군으로 여세게 자라나도록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이 칭송하고있다. 에필트르의 인터넷신문 《이벤트》는 이런 글을 게재하였다. 6월 6일은 조선소년단이 창립된 날이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이날을 의의있게 경축하고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는 국제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경축행사를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나라일에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도 모스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하연설도 하시었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천품으로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명도자로 모시고있는 조선의 학생소년들은 나라의 왕으로,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떠받들리우고있다. 리비아조선친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리 학생소년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고있는데 대해 전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에 참가할 평범한 근로인민들의 아들딸들을 위하여 사랑의 비행기가 날고 특별렬차가 달리는 경이적인 현실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소년단 대표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나란히 앉으시어 음악회를 관람하시고 거듭 자리를 옮겨가시며 사랑의 기념사진

도 찍어주시는 숭고한 화풍은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은위원장의 품속에서 조선의 새 세대들은 미래의 주인공들로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만민을 메혹시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품모에서 특히 감동되는것은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신문 《뉴델리 타임스》는 후대를 사랑하라,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라! 이것이 조선의 최고령도자의 후대관, 미래관이라고 격찬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있어서 제일 기본 순간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놓았을 때이며 제일 행복한 순간은 아

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때이다. 어린이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시며 두볼도 다독여주시고 그들의 귀속말로 다정히 들어주시는분이 바로 그이시이다. 국제사회는 새 세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김정은위원장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 있다. 신문들인 《모스콥스키 콤포스메프》, 《로씨스까야 가제타》, 《레베레TV방송》, 《RT》TV방송, 에호 모스 크비방송, 인터넷신문 《에지나야 프레야》, 인터넷잡지 《렘취》를 비롯한 로씨야언론들도 《김정은령도자와 아이들》, 《미래를 사랑하는 령도자》 등의 제목으로 절세위인의 뜨거운 후대사랑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신문 《콤포스콜스까야 브라우다》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의 학부형이 되어서 평가방과 교복, 교과서와 학습장 등 학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매음쓰신다. 따라서 온 그 사랑이 있어 조선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과의요양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아이들사이의 혈연적유대를 보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피나 세인을 감동시키고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스스럼없이 달려가 안기는 품은 바로 김정은동지의 품이다. 본사기자

탁월한 평도의 손길 아래

손길 아래

지금 공화국에서는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립경제의 토대과 잠재력을 다지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순천린비료공장이 자력분방, 자력변영의 창조물물 훌륭히 일떠서고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완공되어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등 든든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금속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화학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내적잠재력을 총발동하여 활성화의 동음을 높이는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각 도들에서도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자립의 토대를 질량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있다. 강원도에서는 발전 조건과 원산은실농장을 비롯하여 10여개의 대강건설을 통하여 크게 내밀고있다. 도내 인민들이 더욱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 실현의 과학적담보를 찾아내고 대담하게 일관을 벌여 실적을 내고야마는 강원도사람들의 투쟁기질과 본때로 이천군민발전 조건건설을 끝내내 이어 문천, 고성, 평강, 세로, 회양군민발전 조건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도자체의 인재와 건설력량, 자력갱생기질을 든든히 의거하여 큼직큼직하게 일자리를 내며 추진하고있다. 자강도에서는 살림집들의 개건 보수와 인민들에게 수질이 더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들에 있는 우수정화장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오고있다. 평안북도에서도 현대적인 도기 초식품공장건설과 신의주교원대학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태천자라공장건설장을 비롯하여 도안의 어디에서나 인민들과 건설자들의 기세충천한 모습을 볼수 있으며 들끓는 분위기를 느낄수 있다. 이처럼 공화국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총진군길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 나가고있는것은 인민을 위한 올바른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평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확한 전략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해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앞당겨가는 력사적전환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 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분방의 기치높이 민족자주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하시였다.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천만의 심장속에 남에게 준것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강한 정신력, 자기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

는 비상한 창조정신을 심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렇게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자기 선명한 길을 따라 끝까지 줄기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3차 정치국회의에서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자립경제의 토대과 잠재력을 더욱 든든히 다지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생활향상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담보하기 위해서는 화학공업부문을 먼저 높고일어나야 한다고 하면서 화학공업전반을 추켜세우기 위한 당면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화학공업전반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이 크게 벌려나갈 구상과 의지를 표명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내원료와 자재에 철저히 의거하여 각종 화학제품들을 수요대로 중단없이 생산해내는 에네르그질약형, 로력절약형, 자원절약형, 기술절약형, 개발장조형의 다방면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는것이 주체화된 화학공업의 새 부문구조로 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또한 수도시민들의 생활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인민생활보장과 관련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정령 하루빨리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인민사랑의 현명한 평도에 의해 공화국은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가 될것이다. **홍정철**

지금 공화국에서 국가의 자주권과 발전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세력들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해 벌리는 정면돌파전은 다름 아닌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전으로 되고있다. 새로 건설된 순천린비료공장과 화학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산업시설이며 완공된 황해남도물길도 나라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대규모관개체계이다. 건설하고 생산하고 창조하는 모든것은 다 인민의 리상과 요구, 리익을 위한것이다. 평양에 현대적이며 선진적인 보건시설로 일떠서는 종합병원 건설장에서도 인민복무전의 낮과 밤이 흐르고있다. 공화국은 인민을 신성히 떠받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오늘의 정면돌파전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의 따사로운 인민사랑의 정치가 구현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3월 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복무는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모든것을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의 구호에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근본방식이 담겨져있다. 공화국에서는 형세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시종일관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여왔다. 인민적시책은 사회주의국가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의 하나이다. 무로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건설과 어린이보육교양을 비롯한 시책들은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화국과 같은 사회주의제도에만 시행할수 있는 인민적시책들이다. 국가가 결심하고 세우는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의 집대성이며 과감한 결단과 중대조치들도 인민의 리익을 위한 모든것이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그의 충고한 인민관이 담겨져있다. 함경북도에 자리잡은 중평남동은실농장과 같은 대규모내생생산기지도 기구가 낮은 북쪽지방에서 사는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건설된것이다. 창천리, 프라임인유원지, 평강, 인민외방시장, 은하리화자거리, 과학기술전당, 5월1일경평양종합병원건설 착공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을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일관시켜야 한다고 하시였다. 인민복무는 인민에 대한 믿음을 가장 귀중한 재부로 여기고 모든것을 인민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고 헌신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의 구호에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근본방식이 담겨져있다. 공화국에서는 형세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시종일관 인민적시책을 실시하여왔다. 인민적시책은 사회주의국가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성스러운 인민복무전

인민들이 문명생활을 향유하는 창조물물에는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보살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적인 로고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두해전 8월 폭염이 지속되던 어느날이었다. 양덕지구의 높고낮은 산밭들과 경로를 걸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복합을 들었던 종합리관을 꾸릴 자리를 끝내 확정하겠다고 하시며 정말 잘되었다고,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중시시키는데 이바지할 재부를 또 하나 마련할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오로지 인민을 생각하시며 재물쿠는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어가신 그의 헌신의 자욱에 온천욕과 스키, 승마운동을 즐길수 있는 온천문화휴양지가 불과 한해 남짓한 기간에 번듯하게 완공되어 사람들을 반겨주는 기쁨을 주었던것이다. 정치는 인민들의 생활, 운명과 떼어놓고 말할수 없다. 인민을 위한 정치가 근분리념이 없고의 전부이기때문에 그이께서는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것을 중대한 국사로 내세우시고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인민의 불행을 가서주도록 하시였다. 자연의 대재앙이 들이닥친 북부 피해지역에서 인민들이 짧은 기간에 재해를 털고 생활안정을 되찾게 된것도 인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련말만큼도 양보할수 없다는 국가의 과감한 결단과 중대조치가 있었기때문이다. 오늘날 세계적난문제로 되고있는 피난민사태, 실업자사태는 인민을 위협하는 정치, 인민을 책임지지 않는 반인민적정치와 필연적산물이다. 대륙과 지역, 지경을 넘어 각 국을 휩쓸어 사람들의 생존을 위

협하는 악성전염병경과와 그로부터 초래된 파괴적인 피해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민복무전이 오늘 정면돌파전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현실은 판판 다르다. 세계인민들이 조선의 방역조치에 공감하고 동경하고있다. **《누에게도 지지 않는 비루스가 조선에서만이 졌다.》**, **《조선의 방역조치들은 매우 예견적이었다. 조선의 실상은 해당 나라들이 인민의 건강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아니면 자본을 움켜쥐고 집권자들의 경제적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가 하는것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된다.》** 공화국은 세계적인 비루스전염병발생조기에 벌써 단호한 결단과 중대조치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선제적이며 봉쇄적인 강력한 국가비상방역대책을 세우고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세계를 진감케 하는 조선의 거적적인 현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를 존재적으로 하는 국가의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 펼쳐진것이다. 오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인민복무전의 기상이 더욱 백배하여짐에 따라 정면돌파전의 동음이 줄기차게 울리고있다. 인민복무전의 승리이자 정면돌파전의 승리로 되고있다. 국가의 지력과 불력의 위력으로 만년을 뚫고나가는 정면돌파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적의 위력을 과시하는 인민복무전이며 평도를 따라 전체 인민이 미래를 확신하며 부강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거창한 창조대전이다. **본사기자 리 설**



순천린비료공장

자기 힘에 대한 금지와 믿음

하나를 보고 열, 백을 알게 된다. 물건 하나를 두 고서도 그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새 학년도를 맞으며 등교 길에 오르는 학생들이 멘 **《소나무》** 책가방은 볼수록 탐탁하다. 소학교, 중학교 학생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쓰는 책가방은 이전보다도 더 다양화, 다색화되고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제품에 든 원료가 자재가 다 국내산이다. 아이들이 쓰는 **《해바라기》** 학용품도 국내산제품이다. 자기 힘, 자기의것이 제일이라는 감흥이 새로와진다. 보기에 좋고 쓰기에 편리한 질 좋은 가방이나 학용품은 국책으로, 국공으로 되고있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동음속에서 생산된것들이다. 농도순천린비료를 대량생산하는 순천린비료공장에서 자체의 원료와 자원, 기술에 의거하여 건설된 비료공업기지이다. 이 공장의 완공은 자기 힘이 제일이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면 필요 모든것을 마음먹으면대로 만들어낼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푹푹 실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결단이 우리가 살길이며 존엄성은 사회주의강국

을 일떠세우는 길이라고 하시였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갱생의 계두에서 국가의 지속적, 전면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전체 인민이 높은 민족자존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힘으로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몇해전 9월 어느날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마리용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생산실태와 제품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우리나라의 원료와 연료로 돌아가는 공장이라고,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이 리용공장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에서 수준이 높은 공장이다. 원료와 연료를 국산화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구축하여 산업시설과 주택건설에서 소요되는 타일을 생산하고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만수대거 리, 창천리, 프라임인유원지, 창천리, 프라임인유원지 등을 비롯한 많은 건설대상들에 마감재로 쓰였다. 그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먹으면대로 설계하고 일떠세우는 건물들이 우리가 만든 타일을 붙일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궁지가 있는가고, 사람들이 입는 옷에 비유하면

속옷과 겹옷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된셈이라고 하시였다. 자력갱생의 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의미를 생동한 형상적비유로 새겨주신 말씀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강석무늬대리석리, 바닥리, 벽적자베르리, 외벽리, 자기기와 등 각종 제품들을 보시고 모든 제품들이 다 멋있다 평가하시면서 이제는 건물들의 옷을 우리의 것으로 입힐수 있게 되었다고 다시금 못내 기뻐 하시였다. 오랜 시간 생산현장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자력갱생의 소중한 열매인 제품들을 그러나 기쁨속에 보신 그이께서는 생산과 경영활동을 더 개선하도록 하며 제품의 모든 기술적지표들을 세계적수준에 이르도록 할데 대한 문제, 제품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이고 질을 높이고록 하는 문제, 보드리, 수증리, 발광리 등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리용생산공정을 더 꾸리도록 하는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직지도는 생산자들에게 부강변영의 길은 자력갱생에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자존의 정신, 자력갱생의 힘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리용생산지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

이다. 자력갱생의 승결과 발걸음을 떠나서 평양곡산공장, 평양버섯공장과 같은 많은 공장들의 현대화도, 지하전동차와 새형의 무도전차, 개도전차개발, 새로 건설되는 현대적인 거리들과 건축물을 비롯한 창조물들에 대하여 말할수 없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자기 힘이 부강변영의 활로라는것을 여실히 확증하고있다. **석광혁**

참상 기적창조의 비결

이제는 나의 출퇴근길이 평양 남대로 건설장 근처를 지나는 길로 바뀌어졌다. 하루밤 자고나면 한계 층의 골조가 볼출 솟구치고 아침에 본 구조물이 하루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것을 보게 된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건설자들의 일본새를 시시각각 느낀다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한다. 건설자들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한해에 하나씩 웅장한 새 거리를 건설하니 오늘은 역시 인민을 위한 병행도 그런 힘으로 건설한다고... 실로 그랬다. 해마다 방방

매혹과 흥미 온 나라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 아버지》

공화국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어주는 나라이다. 국가적으로 아이들에게 제일 큰 관심이 기울여지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그것은 후대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정치에 구현해가는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기 때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아이들을 각별히 사랑하신다. **《그이께서는 아이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이라고 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억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여도 자신께서는 그것을 희생으로 보신 아니라 행복으로 생각한다고 가슴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언제인가 개진된 어느 야영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해수욕장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여기는 경치가 참 좋다고, 소년단야영소가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나라의 왕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할수 있는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해수욕장에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졌으니 여름철에 야영오는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야영기간 야영생들이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그이께 **《원수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중요한 군사시설물인 방파제를 해체하도록 배려해주시어 이렇게 훌륭한 백사장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이르렀다. 동행한 일군들은 깜짝 놀랐다. **《아니, 아이들을 위해 중요 군사시설물을 해체하다니?》**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는 자는 소년단야영소를 개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야영소구역에 있는 중요 군사시설물인 방파제를 해체하고 바다가에 백사장을 만들어주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중요군사시설물인 방파제가 없어지고 대신 아이들이 뛰놀 백사장이 펼쳐지게 되었었던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 어린 학생소년들을 위해 국

가적인 큰 대회도 열도록 해주시고 전국각지에서 평양에 올라오는 학생대표들을 위해 비행기도 띄워주시는 한량 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맵시이고 든든한 **《소나무》** 책가방이며 매끈매끈하고 하얀 질 좋은 **《민들레》** 학습장에도 그의 다신한 천여비의 손길이 어여웠고 경치 좋은 문수지구 자리잡은 옥류야영원에도 송고한 후대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방파제의 별처럼 무수히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어린이들속에는 고아가 없다. 부모없는 아이들도 모두가 나라에서 궁궐같이 꾸려준 도처의 육아원, 육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이 이 책가방에 자라나고있다. 어느해인가는 설날에 신년사를 마치시는 길로 평양육아원, 육육원을 찾아가서 원아들이 준비한 설맞이공연도 보여주시고 언제인가는 손수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면서 전국의 육아원과 육육원, 초등 및 중등학교

의 원아들에게 공급할 물고기 수량도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또 언제인가는 일군들에게 솔직히 말하면 부모없는 아이들을 부모없는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라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없는 아이들의 가슴에서 **《세상에 부럽잖아》**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자고 따듯이 이르시였다. 원아들을 위한 특별연회를 마련해주도록 하시분도, 과학기술성과를 들으시면서 육아원과 육육원의 원아들을 먼저 생각하신분도, 원아들을 키우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석에서 풀어주시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령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들음에도 꽃을 피우고 싶다는 열의의 별이라도 따라 주실뿐 아니라 아이들이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온 나라 아이들이 그이를 **《우리 아버지》**라고 스스로없이 부르며 넓고 따사로운 그 품에 너도나도 달려가 안기는것이다. **리은미**



건축현장

인민의 분노는 응암처럼 끓어 번진다

똥개를 부추기는 자도 똥동으로 다스려야 한다

— 격앙된 민심의 웨침 —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과 그를 묵인조장한 남조선 당국의 과립치한 행위에 대한 치초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가 날이 갈수록 온 나라에 더욱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다.

남조선당국과 《탈북자》쓰레기들을 단죄구판하는 공화국 각계층 인민들의 항의군중집회와 항의시위행진이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에서 매일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항의군중집회와 항의시위행진장소들은 우리 인민을 모독하고 동족대결에 환장시킨 천하의 역적무리들을 모조리 칼탕처리될 서슬무른 기상이 차넘쳐 있다.

참새를 잡는다는 구어어 포란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포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벼락을 퍼부어서라도 버리지만도 못한 《탈북자》쓰레기들을 세도 없이 죽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 인민들이 터지는 분노와 복수의 웨침이고 그 거대한 분노의 활화산은 가증스러운 남조선당국에 대한 증오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불과 불은 한그릇에 담을 수 없고 평화와 전쟁은 량립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작심하고 북남관계 파괴에 달려들고있는 이상 공화국 인민의 인내성도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씻을 수 없는 죄과는 응암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리치이고 정의가 불에 내리는 선교이다.

김정혁

심성한 조국강도를 더럽히며 군사분계선에까지 기어나와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감행한 《탈북자》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치초는 분노의 웨침 또한 날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신성한 조국강도를 더럽히며 군사분계선에까지 기어나와 반공화국베라살포행위를 감행한 《탈북자》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치초는 분노의 웨침 또한 날이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사람값에도 못 가는 인간 추물들이 하늘의 태양을 향해 샷대질을 해대니 이를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더우기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런 버러지들의 비렬한 행위를 비호조장하면서 불을 붙여 키질할 해대는 남조선당국의 뻔뻔스러운 태도이다.

이렇듯 저렬하고 더러운 적대행위는 적은 역시 적은 무척한 주적관을 우리의 뇌리에 더욱 깊이 새겨주

고 있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장 상건의 구린 내나는 사탕구이에서 꼬리를 짓는 《탈북자》똥개들이나 미물들을 끼고돌아가는 주인이나 다 갈고같은 추물들이다. 정말이지 이 더러운 오물들을 모두 이 세상밖으로 내던지고싶은 심정이 라고 토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은 민족공동의 합의를 파기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자들의 동족대결본색에 대해 다시한 번 통감하였다.

민족앞에 공약한 력사적 선언과 합의를 헌신적처럼 내던진 자들과 북남관계선에 대하여 더 논할 여지도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주대도 체면도 없이 상건이 하라는대로만 굴서거리 는 남조선당국과 결산할 때 는 왔다.

지금 극도로 분노한 우리 인민은 역적의 무리들을 통

지처참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천추에 용납 못할 악행만을 일삼으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통일연구원 리영국연구사는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을 묵인조장시키는 남조선당국을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똥개도 제 집에서는 으르다고 신통히 인간쓰레기들과 남조선당국을 두고 생겨난 말갈다, 남조선당국이 앞에서는 입만 벌리면 관계개선과 객적인 《호우》나발을 불어대는데 그 웃자란에 어떤 구린내나는 오물들이 서식하는가를 보라. 역적이 짝이 없는 추물들을 안고있으면서 똥개들이 마우렁 동족대결나발을 짓어대고 민족의 존엄과 정의에 먹칠을 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음흉한 속심이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났다. 똥개를 부추기는 자도 마땅히 똥동으로 다스려야 한다 고 질타하였다.

본사기자 전명진

천하무너한자들이 천벌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직도 《탈북자》쓰레기들의 베라살포죄악을 놓고 이런저런 말장단을 늘어놓으며 바깥의 갈대처럼 늘어놓고 있다.

공화국인민이 베라살포망동에 왜 그토록 격분해하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먹은 나이들이 아까울뿐이다.

오늘의 파국적인 북남관계 위기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남조선당국에 있다.

베라살포는 단순히 종이장을 몇 장 날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극도의 적대행위이고 정치적도발이다.

더우기 인간은 고사하고 들짐승만도 못한 《탈북자》쓰레기들이 남조선당국의 묵인비호에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린것은 절대로 용서 못할 최대의 범죄행위이다.

평등자와 인민이 하나의 사상과 의지, 숭고한 도덕의리로 굳게 뭉쳐있는 공화국에서 최고존엄을 얼마나 신성시하는가를 남조선당국도 이미 알고있을 것이다.

최고존엄은 공화국인민의 생명이며 삶의 전부로 되고있다.

최고존엄을 우롱한것은 공화국의 수천만 인민을 우롱하고 중상모독한것이며 이 땅의 밝은 미래도 모두 부정했거나 같다.

그래서 지금 공화국인민 누구나 격분과 증오를 금치 못하고있는 것이다.

먹을것만 던져주면 아무에게나 꼬리를 짓는 똥개들은 조국이 무엇인지 존엄이 어떤것인지 모르는 추물들이니 그렇다치더라도 남조선

당국이 그것들의 변호사가 되어 변명하기에 급급해할수록 뒤에서 묵인조장한 죄과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시기 한중도 안되는 똥개들의 망동이 어떤 화를 불러왔는지 알고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취한것도 없고 오히려 묵인비호해 온것은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여전히 적대적으로 대하며 범죄적인 대결정책을 거두지 않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주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던 《평화시대》, 《남북협력》의 허울을 벗겨보니 그속에는 독사가 파리를 틀고있었다.

동족대결로 《치적》을 쌓고 그것으로 망한 리명박, 박근혜 《정권》만이 대결 《정권》이었던가.

이발을 드러내놓고 하는 대결보다 미소속에 칼을 가는 대결이 더욱 범죄적이고 용서받으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입버릇처럼 외우던 《평화시대의 도래》를 제스스로 뒤집어놓았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으로 질은 전쟁화약내를 계속 피우고 이전 보수 《정권》들도 무색해할만큼 무력증강에 광적으로 매달려왔다는 것은 자라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더우기 조선반도는 지금도 정전상태에 있다. 정전상태의 조선반도에서 베라살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남조선당국이 과연 모른단 말인가.

베라살포는 전쟁의 한 형태인 심리전의 일환이다.

단 한번, 단 한장을 뿌려어도 철

저히 동족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누구의 손을 빌어 날렸던간에 분명한 전쟁도발행위이다.

우발적인 실수도 자칫하면 돌이킬수 없는 군사적충돌로 확대될수 있는 예민한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전쟁연습의 총포성을 매일 울리다 못해 적대의 베라살포들을 마구 날려보내고있으니 화약더미위에 불을 다는 어리석고 무모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베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판복하게 짓밟고 공화국의 선의도 참을수 없게 배신한 남조선당국이다.

그 죄를 이제 무엇으로 씻겠는가.

참새를 잡는다는 구어어 포란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포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벼락을 퍼부어서라도 버리지만도 못한 《탈북자》쓰레기들을 세도 없이 죽탕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 인민들이 터지는 분노와 복수의 웨침이고 그 거대한 분노의 활화산은 가증스러운 남조선당국에 대한 증오로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불과 불은 한그릇에 담을 수 없고 평화와 전쟁은 량립될 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작심하고 북남관계 파괴에 달려들고있는 이상 공화국 인민의 인내성도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씻을 수 없는 죄과는 응암의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의 흐름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인간세상의 리치이고 정의가 불에 내리는 선교이다.

김정혁

김정혁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7일 《민족의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라는 제목의 론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묵인조장하에 천하의 인간쓰레기들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민족의 신성한 핵까지 우롱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를 감행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는 지난 5월말 《탈북자》인간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어나와 공화국을 반대하는 베라살포를 날려보내며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뛰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고향과 부모처자까지 버리고 말아난 들짐승보다도 못한 추물들이 할수 있는 지랄발광이라고 그는 비난하였다.

《민족의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주장

그는 어디에 가도 오물은 오물이고 주변환경에 악취를 풍기기마련이지만 문제는 요즘 남조선에서 이 인간오물들을 비호두둔하는 명칭이들까지 나타나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오물이 섞어 집안에 악취를 풍기면 오물을 청소하지 않은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법이다.

이번 기회에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쓰레기들을 비호하고 민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망동까지도 조장하는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

를 위한 《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물의 악취가 몸에 밴 추한것들과 마주앉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더우기 제 집안 쓰레기도 제대로 청소할만 한 의지와 능력도 없는자들과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론할수 있겠는가.

뒤돌아보면 20년전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던 6.15북남공동선언이 어떻게 되어 빈 휴지장이 되었으며 강산이 두번이나 변해도 북남관계가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인지 조

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북남관계문제해결의 앞당어리, 인간오물쓰레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개선이나 민족의 화해에 대해 기대할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인간오물들의 악취를 그대로 방치해두며 대결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남조선당국의 이중적태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계속하여 그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제동을 거는 추악한 범죄자들, 사람값에도 못드는 인간추물들을 깨끗이 청산해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내리리라 무자비한 철추를!

김송림

쌍이교쌍인 분노의 응암이 드디어 가슴을 뚫고 치초는다. 더는 숨겨져 살려둘수 없는 천하의 버러지같은 인간쓰레기들을 죽탕처리될 보복의 피는 뚫어라

정악을 넘어 내뿜치는 증오여 가증스런 미친개들의 송풍 끊지 않고서는 결코 삭일수 없는 격노여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 건드리는 더러운 똥개무리를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정벌의 날벼락 터쳐 하들도 서리발 돌고 이 땅은 응징의 화산 불이 지동친다. 들짐승보다 못한 추물들의 상추물들이 천만심장에 억척같이 뿌리박은 정신적행위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정신적행위 어떻게 뽑아내고 통락하려드느냐

이런 구린내나는 쓰레기들의 짓거리

악취 뿌려대며 짓어대는 산송장들의 주동 이길

편히 눈뜨고 묵인하는 소경들 제 집안 오물마저 걸어내지 못하는 무뎀한자들도 푹푹히 알아두라

죄악의 대가 뼈아프게 치르리라것을

구차한 변명 객적은 구실의 보자기로 깨닫는 드물들 비호하며 안간힘 써들수록 그만쯤 파국의 낭떠러지는 더 깊어만지고 죄악의 배설물은 더 늘어만나다는것을 절망의 탄식만을 토해내리라것을

그렇다! 이제는 참을성도 한계를 넘었다. 히스레리 정신병자들의 대역죄도 비루먹은 똥개들 방치하며 묵인하는 자들도

피하지 못한다 우리의 무서운 응징을 바라지 말라 리갈만 한 자비도

오, 가차없이 내리리라 무자비한 철추를!

남조선당국자들의 묵인하에 감행되고있는 인간쓰레기들의 천인공노할 반공화국베라살포망동에 공화국인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도 경악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민족과 력사앞에, 인류앞에 저지른 대죄악을 반성사죄하고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에서는 반성과 뉘우침, 사죄가 아니라 뻔뻔스러운 회피와 치졸한 변명이 울려나오고있는가 하면 심지어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망발들이 거러없이 터져나와 온 겨레를 더욱 격분케 하고있다.

그 앞장에는 적폐부리의 집결체인 《미래통합당》이 서있다.

얼마전 《미래통합당》것들은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와 지적에 대해 《표현의 자

《대북심리전은 전쟁행위》

남조선의 《YTN》라디오 방송은 8일 반공화국베라살포를 반대하는 군사분계선 접경지역 주민인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와의 대담을 내보내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망동을 묵인조장하는 당국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표현하였다.

《박근혜정권때부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민통선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그때 만들어졌다면 오늘날 이런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안 만들었다. 남북관계를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전단살포금지법은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미래통합당》패거리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이다.》라는 쟁변을 늘어놓는데 대해서도 그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글을 쓴다든가, 자기들이 방송을 나와서 말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대북심리전은 전쟁행위이다. 국제법상으로 대북심리전은 전쟁이기때문에 전쟁을 거는 것이이다. 그것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전쟁을 거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대북심리전 이 국제법상으로 전쟁이라 는 것을 잘 모르고있다. 이것은 전쟁행위이기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침을 한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이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반평화적, 시대착오적인 행위》

— 남조선 각계가 규탄 —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는 범죄적인 베라살포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각계의 거센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민주평화통일운동회의 수석부장은 6월 5일 방송대담에서 《정부는 대북베라살포와 관련하여 제지시켜야 하며 특히 탈북자단체들이 6.25전쟁발발 70주년을 계기로 대북베라살포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제지시키기 위한 대처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회(NCCCK) 화해통일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탈북자단체 대북전단살포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있다.》며 《대북전단살포는 판문점선

정신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부 대북베라살포행위를 근절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북베라살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대북베라살포는 단순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려는 통일기본

쓰레기를 감싸주는 구린내나는 집단

이 아닐수 없다.

최고존엄을 건드리는것은 공화국인민모두를 모독한 것이고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협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된 정신적기둥이며 가장 신성시하는 최고존엄에 대해 감히 이라중저러 공황이었으니 그 죄는 삼죽을 멀해도 모자랄 대역죄인 것이다.

경하진

본사기자

한때 부리당이란 철학자가 흥미있는 우화를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며칠째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하늘소가 서있는 곳으로부터 똑같은 간격으로 왼쪽에는 물이 철철 차넘치는 물통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먹음직한 건조더미가 쌓여있었다고 한다.

하늘소는 어느것부터 선택할것인가를 망설이며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건조한데 씹어먹지 못하는 채 굶어죽게 된다.

후에 두 물통중에서 어느것을 선택할지 몰라 몹시 동요하는 사람을 《부리당의 하늘소》에 비유하고있다. 대국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날로 더욱 치열해지고있는 지금 그 짝에 끼워

《부리당의 하늘소》 신세

서 《량자역일》을 강요받러 남조선당국의 처지가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고 할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양성시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중하면서 패권전략실현에 광분하고있다.

이런 속에 남조선당국은 경제, 군사, 보건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대국들사이의 짝에 끼워

사대와 외세의존의 악습에 물젖은 남조선당국이 어리석게도 《복잡다단한 외교안보 환경변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식으로 《위험한

줄라기외교》를 해온데로부러 지금 몹시 난처한 처지에 빠진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추구해온 《균형외교》라는것은 미국에 코가 꿰여있는 종신세에 불과한 남조선으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것이였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잠재적 인적수들은 군사적으로 포위억제하고 이 지역에서 포권을 장악할것을 꾀하고있는 미국은 남조선에 대아시아비전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미국은 이른바 《동맹》이라고 하는 남조선의 처지와 운명은 안중에 없이 고래싸움에서 저들의 편에 서라고 옥박지르고 있다.

외세에 종속되어있고 자주적존엄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남조선당국이 어떻게 행동하리라는것은 보지 않아도 변하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은 주변국들과의 약속을 제버리고 미국상선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있다.

최근 남조선당국이 경상북도 성주에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체제 《싸드》의 핵심장비를 또다시 끌어들이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주변나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 등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면서 남조선이 그의 최대희생물로 전락되였다》, 《《안미경중》으로 지행해온 문재인정부의 (줄라기외교)가 종말을 고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상전인 미국의 비위도 맞출래, 저들의 대미추종정책에 아니꼬운 태도를 취하는 주변나라들의 눈치도 불래 비지땀을 흘리며 이리저리 지리지도 못하는 남조선당국의 궁상스러운 처지는 체질화된 친미사대와 외세굴종정책이 초래한 엉뚱한 귀결, 자주와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식민지노복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사대적근성과 외세추종은 남조선에 치욕과 재난만을 가져다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 일

한나라의 악법

지금 남조선의 더불어 민주당이 현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보려고 분주하게 돌아치고있다고 한다.

조선반도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기본장본인들이 《성공》이란 말을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현 남조선당국이 걸로로는 《초불정권》의 모자를 썼지만 하는 짓거리들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집권초기 《사람사》는 세상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미국에(NO) 하는것을 배워야 한다.》고 호언장담하던것이 언젠가실제 상선의 《싸드》배치와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굽어드는가 하면 동족을 반대하는 무력중장책동과 전정연습소동에 날이 갈수록 열을 올리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더우기 간파할수 없는것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이골이 날대로 나서 《한미동맹친가》만 목이 쉬도록 불러대나니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험악해지고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남조선당국에 《자기 뇌수가 없는 정권》, 《미국만 쳐다보는 꼭두각시정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비난이 쏟아졌는가.

현실이 이러할진대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떠들어대고있는 《성공한 정부》타령이 월변이나 한 말인가.

무능하고 실패한 《정부》를 《성공한 정부》라며 추켜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현 《정부》라는것도 보수패당과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 않는다고 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남조선당국과 《탈북자》쓰레기들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흔히 바람따라 돛을 달면서 신념과 주장, 량심도 없이 리해타산에 따라 파렴치하게 놀아내는자들을 가리켜 《박쥐》라고 조소합니다.

중세유럽의 어느 한 작가가 몇몇이동물이지만 새와 같이 날아다니는 박쥐의 특이한 모습과 생태일면을 가지고 《박쥐와 새들》이라는 우화를 만든 때로부터 사람들은 박쥐를 기회주의자, 배신자, 파렴치한의 대명사로 써왔습니다.

남조선에도 리속에 따라 여야당을 분주히 오고간 정치시정배들, 오늘은 이 《동지》, 래일은 저 《동지》로 날아다니며 변절과 배신을 밥먹듯이 하는 인간 《박쥐》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오직 저 하나의 리익을 위해 간에 붙었다 설에 붙었다 하는 보수패당수에 맡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도 그런 《박쥐》와 별다른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80살이 되도록 독특한 정견이나 주제가 없이 오직 제 이름자나 날리고 더러운 정치적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새가 되고 때로는 짐승이 되는 박쥐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도 그런 《박쥐》와 별다른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80살이 되도록 독특한 정견이나 주제가 없이 오직 제 이름자나 날리고 더러운 정치적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새가 되고 때로는 짐승이 되는 박쥐가 바로 이자입니다.

《유신》독재자의 사라구니 밑에서 맴돌던 전적이 무색하게 2004년 새천년민주당에 기여되었고 이후에는 회세의 악녀인 박근혜의 치마폭에 감겨들었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홀 날아

가버리고 이번에는 또다시 보수패당인 《미래통합당》에 계 바라들어 《당재건》, 《보수혁신》을 떠벌이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노릇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리익을 위해서는 여야

도 명백치 않은데다 인간주물들과 보수꼴통들을 공화국과 불신하고 대결하도록 낮이고 밤이고 일새없이 부추기고있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이 《늑은 박쥐》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때문에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도 명백치 않은데다 인간주물들과 보수꼴통들을 공화국과 불신하고 대결하도록 낮이고 밤이고 일새없이 부추기고있으니 말입니다. 얼마전에도 이 《늑은 박쥐》는 《탈북자》쓰레기들의 반공화국배라살포때문에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관계가 완전히 파국지경에 직면하고있는데도 《왜 몇몇이 대응 못하는가.》고 악착을 고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 서식하는 박쥐들은 대체로 모기, 밤나비와 같은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데 이 《박쥐》는 제 동족을 잡아먹겠다고 개나발질만 하고있으니 뭐라고 불려야할지 모르겠거니와 이런 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음혈박쥐》

미국에서 인종주의반대시위 10여일째 계속

미네아폴리스시의회 시경찰국을 해산

미국에서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들이 10여일째 계속되고있다. 백인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지금 뿌리깊은 인종주의제도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폭발로 번져가고있다. 6일 시카고시에서 약 2만

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정의를 위한 시카고행진》이 진행되였다. 행진참가자들은 한 공원에서 집회를 가지고 인종주의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흑인살인사건에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뉴욕시에서는 야간통행금

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이 밤늦도록 거리를 행진하면서 백인경찰의 살인만행을 단죄하였다. 이날 콜로라도주의 덴버시에서 8만 인종주의반대시위가 벌어졌다. 7일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수천명이 항의행동에 참가하였다.

미국사회에 뿌리깊은 인종주의제도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전국적범위에서 계속 확대되고있는 속에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살해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의 미네아폴리스시의회는 이날 황급히 시경찰국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에서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

벨지끄, 마자르, 영국 등 유럽 각지에서 7일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벨지끄의 브뤼셀에서 진행된 시위들이 1만명 이상의 각계층 군중이 떨쳐나섰다. 시위자들은 《숨을 쉴수 없다》, 《경찰은 살인자》라고 쓴 구호판과 프랑카드들을 들고 흑인들에 대한 폭압을 일삼는 경찰의 만행을 단죄하였다. 마자르의 부다페스트에서는 1 000여명의 주민들이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경찰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의는 없다고 하면서

미국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살해된 흑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항의행동을 취하였다. 영국의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수만명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자들은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한쪽무릎을 꿇고 주먹을 쳐들면서 《과부색에는 죄가 없다》, 《《COVID-19》보다 더 위험한 비루스는 바로 인종주의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단마르크의 코펜하겐과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도 많은 시위자들이 미국대사관앞에 모여 백인경찰의 야만적

인 만행을 단죄하였다. * * * 나미비아대통령 하계 게인 고브가 8일 미국에서의 흑인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인종주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맞서싸워야 할 암과 같다고 하면서 나미비아는 과부색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것을 반대하며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세계도처에서 과부색에 관계없이 모두가 인종주의를 규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가 인종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 * * 튀르키예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8일 미국경찰의 흑인살인만행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숨을 쉴수 없다》, 《인종주의를 끝장내라》 등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흑인들에 대한 미국경찰들의 차별행위를 단죄하였다. 그들은 미국정부가 모든 인권침해행위를 청산하고 인종주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파쇼악법의 폐지를 주장

보도에 의하면 국민주권연대가 1일 《21대 국회는 보안법을 무조건 철폐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보안법》 폐지라고 주장하였다. 적폐세력이 틈만 있으면 《보안법》을 내세우며 마녀사냥을 일삼고 민중의 생존

언론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주장

8일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가 적폐후보박선운동을 벌였다는 죄 아닌죄로 구속된 대학생진보연합성원이 쓴 글을 실었다. 같은 검찰과 보수언론이 한쪽이 되어 성노예피해자들의 거처지를 강제수색하고 일본군성노예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력사를 부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언론적

언론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주장

폐청산, 검찰개혁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면서 글은 위기에 몰린 적폐세력이 또 어떤 먹이감을 만지작거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고한 사람을 탄압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국민이 언론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위해 투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6. 10 만세시위투쟁에 대한 극악한 탄압학살만행

지금으로부터 94년전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세차례 벌어진 우리 민족의 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쌓여있었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을 더욱 격화되였다. 1926년 6월 10일 당시 일제는 순종의 상가가 지나갈 길을 따라 수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중을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피 좌우에 빼곡이 늘어섰던 군중들은 순종의 상가가 창덕궁을 떠나 종로를 지나갈 때 일제히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수많은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한편 일제는 악명높은 고등경찰제도를 내오고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였으며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꾸며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봉을 일으켰다.

하지만 일제의 교활한 술책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반일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이 사망한것을 계기로 우리 민족의 반일감정은 더욱 격화되였다. 1926년 6월 10일 당시 일제는 순종의 상가가 지나갈 길을 따라 수많은 경찰을 배치하고 대포까지 동원하여 군중을 위협해나섰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피 좌우에 빼곡이 늘어섰던 군중들은 순종의 상가가 창덕궁을 떠나 종로를 지나갈 때 일제히 반일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수많은 시위군중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세를 올렸다. 한편 일제는 악명높은 고등경찰제도를 내오고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였으며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들을 꾸며내며 우리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선봉을 일으켰다.

여기에 겁을 먹은 일제는 발톱까지 무장한 수많은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자들에게 대한 무자비한 과포탄압을 감행해나섰다. 각계층 시위군중은 일제군경찰과 맞서 곱할없이 싸웠다. 일제는 무지막지하게 칼부림을 하고 총포사격을 가하여 수많은 시위자들을 학살하고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말미암아 삼천리강토는 우리 겨레의 피로 붉게 물들여졌다. 6.10만세시위투쟁참가자들에게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은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 전대미문의 조선인학살범죄의 단죄실례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일제는 《조선인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날강도적인 제벌을 늘어놓으며 조선강점기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다치게대로 살륙하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살륙만행은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국가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도 덮여버릴수도 없는것이였다. 본사기자 김혜성

후대사랑이 어린 《소나무》 책가방

공화국의 학생소년들의 생활속에 깊이 자리잡은 《소나무》 책가방!
 오늘 아침도 집집에서는 등교길에 오르는 귀여운 자식들에게 부모들이 《소나무》 책가방을 메워주며 공부를 잘하고 오라고 당부를 하였으리라.
 걸을 봐도, 안을 봐도 남의 것이 조금도 부럽지 않은 《소나무》 책가방이다.
 모양 좋고 질 좋은 가방에 동심에 맞게 그려진 소년장수며 령리한 너구리, 금시라도 숲의 향기가 풍길듯 싶은 가방상표...
 몇 해 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한손

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을 들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었다.
 아이들에게 멋진 배낭식가방을 만들어주라고 그이께서 마디마디 정을 담아 말씀하시던 그때부터 아이들의 가방생산을 위한 시간이 흘러갔다.
 기어이 제일 좋은 우리의 것을!
 아이들에게 제법으로 만든 학습장이며 가방을 비롯한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1월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어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만든 멋진 가방을 보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우리가 만든 질 좋고 멋진 가방을 안겨주려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 아이들의 가방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주체106(2017)년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찍으시면서 올해 자신의 행군길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었다.
 오늘도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공장을 돌아보시고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간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학생들이 현대과학기술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인재들로 키워가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대학에서 실시되는 CDIO교육방식을 대학의 실정에 맞게 혁신하여 교육과 과학연구와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는것이다.
 CDIO는 새 제품에 대한 착상(Conceive)으로부터 설계(Design), 실현(Implement), 운영(Operate)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
 CDIO교육방식은 구체적인 제품이나 공정, 체계의 착상과 설계, 실현, 운영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협력하면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교육방법이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교육방식을 받아들여 학생들이 전공분야의 깊은 지식을 소유할것과 함께 합계 1등을 할수 있었다. 고 말했다.
 로보트를 자제로 착상하고 설계하고 제작하여 운영하는 과정에 학생들은 대학교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사고한다던지 많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을뿐 아니라 창조적능력을 훨씬 높일수 있다는 것을 실지 체험으로 느꼈다.
 이밖에 초음파전지질판, 전자교과, 무인기 등 많은 새 기술제품들도 대학교원들의 지도밑에 학생들과 박사원생들이 만든것이라고 한다.
 장정혁교원은 학생들이 초음파용공공학강의시간에 초음파를 리용하는 거리측정방법을 배우면서 그 원리를 리용하여 초음파전지질판을 만들때 기초하여 집체적지혜를 모아 만들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무인기도 재료선택과 설계, 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학생들자체의 힘으로 해냈다.
 물론 그 나날에 실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실패속에서 더 많은것을 배우며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는 의지와 능력을 키워갔다.
 드디어 학생들이 자체로 제작한 무인기가 완성되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것을 본 학생들은 《무인기를 제법으로 직접 만들어 띄워보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더 잘 리해되고 무엇이든 다 만들어낼수 있다는 신심이 생긴다.》며 환성을 울리었다.
 우리는 이곳 대학 교원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하였다.
 이들의 대학시절, 그것은 배움의 시절인 동시에 창조와 시련이라는것을.



평양가방공장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었으며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그이께서 아이들의 가방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 쓰시었으면 주체106(2017)년의 첫 현지지도의 자욱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찍으시면서 올해 자신의 행군길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었다. 오늘도 평양가방공장의 종업원들은 공장을 돌아보시고

맛과 향기가 독특한 오일 건강음료

공화국의 오일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제품들이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키모와 요구르트, 우유, 과일단독, 영양음, 에네르그활성음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수도 다양하지만 호두에스키모, 검은참쌀에스키모, 누룽지맛에스키모를 비롯하여 매 품종에 따르는 가치

공화국의 신경철감공장에서 생산한 철감들을 써본 사람들은 우리의 것이 제일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아크릴제철감이라고 하면 아크릴제수지를 피막제로 리용한 철감으로서 해박과 비에 견디는 성질이 강하고 광택, 굳기 등의 기계적성질이 뛰어난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있다.
 얼마전 신경철감공장을 찾은 우리에게 림승호책임기사는 공장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여러가지 용도의 철감들을 생산해내고있으며 아크릴제철감생산공정에서 중핵을 이루는 합성탑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는 이 합성탑에서 아크릴산 및 아크릴산부활성공정을 진행하여 철감의 원료인 단량체를 만들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과학자들과 로동자들은 생산기술도입과 설비제작, 운영이 극히 어려워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의 제품물도 되고있는 아크릴산생산공정을 우리 식으로 확립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남용화합설계연구소 설계원들과 지혜를 합쳐 합성탑에서 실장부라고 할수 있는 산화반응기를 자체로 제작하는



공화국의 오일건강음료 종합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제품들이 독특한 맛과 향기로 하여 날이 갈수록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에스키모와 요구르트, 우유, 과일단독, 영양음, 에네르그활성음료 등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종수도 다양하지만 호두에스키모, 검은참쌀에스키모, 누룽지맛에스키모를 비롯하여 매 품종에 따르는 가치

《우리의 것이 제일입니다》

◆ 신경철감공장을 찾아서 ◆

데 주저없이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외국의 기술자들이 공장자체의 힘으로는 만들지 못하던 산화반응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손색없이 제작했다.
 하여 아크릴산생산공정이 발전된 몇개 나라들의 독립물로 되어오던것에 종지부를 찍었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림승호책임기사는 이 합성탑에서 산화반응공정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얻은 단량체가 철감생산 및 포장작업반으로 보내진다고 설명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종합조성실로 걸음을 옮겼다.
 종합조성실에서는 철감생산체통의 원료투입과 합성, 제품생산의 모든 공정을 종합조성체통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운영하고있었다.
 이곳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자들이 류량측정오차를 실시간으로 판정하는데 기초하여 폭발현상을 예측방지할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연구완성하고 수천개의 전자요소들로 구성된 폭발구역감시조성체통, 분산형조성체통, 비상정지보호체통을 개발도입하여 통합생산체통을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완성한 나날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깊게 전해들을수 있었다.
 철감생산 및 포장작업반에 들어서니 혼합기를 운전하는 혼합공들과 포장로보트에 의하여 철감을 포장하는 포장공들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왔다.
 이곳에서 단량체를 유량측합시켜 전색제(수성, 유성)를 만든 다음 색깔과 안료들을 혼합시켜 수성철감과 유성철감을 만들어 용기에 포장하고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만든 철감은 빛견딜성이 약한것으로 하여 빛을 오래 받으면 변색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한 아크릴제철감은 광택효과가 좋고 내후성과 물견딜성이 높으며 부착력이 강한 우점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하기에 공장에서 생산된 수성철감은 이미 김일성경기장 개건보수에 쓰이며 그 질이 충분히 확증되었을뿐만 아니라 러명거리건설때에도 한몫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는 이들이 있어 원로, 자제로부터 설비와 완제품, 포장용기에 이르기까지 질 좋은 아크릴제철감들이 팽방 생산되고 있는것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철감들을 마르면서 제일이 제일이고 자기의 것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을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워질 조국의 모습을 그려보는 우리의 마음은 마냥 즐거웠다.
 본사기자 리철민



록색건축의 미래를 엿보게 하는 거리

공화국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러명거리를 돌아보고 록색건축기술의 생동한 교과서와도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러명거리는 록색건축에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이 생태환경을 좋게 하고 주변환경에 친숙하게 하는 원칙에서 설계되었다.
 러명거리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모든 살림집과 봉사건물, 공공건물에 록색건축기술을 받아들여 에네르그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러명거리에는 태양열을 축

열하였다가 리용하는 광성형 동풍식태양열난방기술이 도입되어있다.
 그리고 지열냉난방체계를 리용하여 해마다 많은 에네르그를 절약하고있다.
 일명 《도시남새공장》으로 불리우는 수경재배에 의한 지붕온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러명거리의 여러 공공건물과 유치원, 탁아소에 건설된 지붕온실에서는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러명거리에 가보면 남향쪽에 놓인 창문의 생김새가 특이한 소학교건물을 볼수 있다. 이 창문들에는 여름철에 햇빛이 방안에 직접 비쳐들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설치되어있다.
 이러한 차광장치를 빛선반

봉화화를 실현한것으로 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초고층살림집들의 기단층에는 측백나무, 향나무를 비롯한 사철푸른 나무들과 여러 꽃관목을 심었는데 봄이면 그 경관이 이루 말할수 없이 아름답다.
 러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세워져있다.
 한W의 전기라도 절약하는 원칙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복도와 계단, 승강기알출 등에 소리, 빛수감식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고있다.
 러명거리의 주민세대들에는 태양발전지들이 따로 설치되어 세대조명을 자연에너르기로도 보강할수 있게 하고있다.
 한편 록색건축기술도입사에 가면 태양빛유도조명체통이 도입된 특색있는 조명장치들을 볼수 있다.
 이 조명기구들은 순수 태양빛만을 가지고 조명을 보강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밖에 러명거리에는 벽면록화기술, 비물처리리용기술, 잔디블록과 같은 다양한 록색건축기술이 도입되어 그 경제효과성이 증명되고있다.
 록색건축물은 방대한 에네르그를 절약하여 큰 실리를 얻을수 있다.
 한마디로 러명거리에 가보면 공화국의 록색건축발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다.
 송호철

과학기술전당에서 새로운 자료보급체계 개발도입

과학기술자들은 전당에서 구축하는 모든 과학기술자료들과 각급 과학기술보급단위들의 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보다 신속정확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추세에 맞으면서도 해당 과학기술보급거점들과의 정보공유를 더욱 목적지향성있게 할수 있는 자료보급체계를 새로 연구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었다.
 전당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도서관부서 과학자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해당 자료가지의 구조와 국가망에 의한 전송구약을 표준화하였다.
 과학자들은 전당에서 구축하는 모든 과학기술자료들과 각급 과학기술보급단위들의 정보수요를 주체별, 장서별로 관리할수 있는 주체별로 파일의 효율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완성하였다.
 새로운 자료보급체계가 개발도입됨으로써 종전의 자료전송방식에 비해 운영에서 신속성과 적응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자료관리에서의 통일성이 보장되고 보다 실용적이며 종합적인 전자장서관리체계를 확립할수 있게 되었다.
 이 자료보급체계에 의해 과학기술전당에 집결된 최신자료들이 표준화된 전송구약과 해당 부문, 지역, 단위의 과학기술보급거점들에서 요구하는 보급주기와 내

민족의 향취 그윽한 여러가지 썩떡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낱알과 나물, 풀 등의 독특한 향취와 맛, 자연색소들을 리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으며 보기도 좋은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썩떡도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해먹은 고유한 민족음식의 하나이다.

얼마전 우리는 썩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을 특색있게 만들어 봉사하는 것으로 소문난 창광음식점거리 떡국집을 찾았다. 김이 문문 나는 떡국이며 시원한 김치, 특유한 향취가 나는 썩썩떡, 썩떡전, 단소썩떡을 비롯한 갖가지 썩떡들이 차려진 식탁앞에 앉아 식사를 하는 손님들의 얼굴마타에는 웃음이 가득차 있었다.

서현경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이 식당에서 봉사하고있는 민족음식가운데서도 특별히 손님들의 인기를 끄는 것은 썩떡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인 썩은 그 종류가 수십종이나 되는데 그 용도에 따라 크게 떡썩과 나물썩, 약썩으로 나눈다고 한다. 떡썩에는 단백질, 기름, 탄수화물, 광물질, 섬유소가 들어있

는데 썩 100g에는 카로틴이 3.69mg 함유되어있어 홍당무와 같이 식물성리조제로가운데서 가장 많다고 한다. 그러므로 떡썩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였습니다. 썩떡은 썩떡과 부인병, 소화장애 등에 아주 효과적이며 고혈압, 기관지염, 감기와 같은 질병치료에도 좋다. 그리고 일반떡에는 없는 비타민A와 C, 광물질을 보태주므로 영양학적인 의의가 클뿐아니라 알카리성식품인 썩과 산성식품인 흰쌀가루를 섞어만들기때문에 산-알카리평형을 맞추어준다.



평양시내에 썩떡을 만들어 봉사하는 식당들이 많지만 이곳 떡국집의 썩떡은 썩의 향기가 알맞춤하고 색깔이 고르로우며 그 맛이 독특함으로 하여 손님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최근에 이곳 떡국집에서는 단소썩떡을 새로 만들어 내놓았는데 손님들속에서 수요가 높다고 한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썩떡을 봉사하게 된다는 이곳 요리사와 봉사원들의 수고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봄이 오면 이들은 산과 들에 나는 햇썩을 채취하여 원료를 확보하고있으며 봄철만이 아니라 사시절 특색한 썩향기 풍기는 썩떡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있다.

올해 설명절날 이곳 떡국집에 와서 떡국과 함께 썩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민족음식들을 맛본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맛있는 떡을 처음 먹어본다, 그 비결을 대물수 없는가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우리 식당의 썩떡을 한번 맛보라고 건네는 서현경책임자의 손길에 끌려 식탁에 앉으니 독특한 썩향기가 와닿았다. 향기뿐아니라 그 맛도 참으로 좋았다. 여기 떡국집이야말로 민족의 향취 그윽히 넘쳐나는 곳이었다.

본사기자 김춘경

활짝 핀 장미꽃들

장미는 세계적으로 원예품종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꽃나무의 하나로서 바빌로니아시대에 그리스에서 이미 관상용, 약용, 향료용으로 재배되어왔다고 한다. 장미는 1270년에 본격적으로 재배되었고 15세기에 들어와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장미는 그 종류가 놀랄 정도로 많은데 알려진 것만 하여도 2만 5000여 품종이며 그중에서 최초로 리용되는것은 약 1만 품종이다. 현재 재배되고있는 장미는 여러차례의 신품임과정에 얻어진 재배품종을 포괄하므로 학명도 Rosa hybrida로 쓰이고있다. 재배력사가 오래된것으로 하여 장미에 대한



본사기자

민족회화계의 재사들과 그 유산

인물 풍속화가 신윤복

신윤복은 김홍도와 더불어 18세기 사실주의 회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인물풍속화가이다. 김홍도가 주로 산과 들에서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생활사태를 그렸다면 신윤복은 도시에서 사는 평민계층의 각이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주막》, 《배놀이》, 《부나들이》, 《가야금타기》, 《칼춤》, 《미인도》, 《소나무와 매》 등이다.

신윤복은 김홍도와 더불어 18세기 사실주의 회화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 인물풍속화가이다. 김홍도가 주로 산과 들에서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생활사태를 그렸다면 신윤복은 도시에서 사는 평민계층의 각이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그의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주막》, 《배놀이》, 《부나들이》, 《가야금타기》, 《칼춤》, 《미인도》, 《소나무와 매》 등이다.

이러한 장미의 위성에 찬 생활리면을 낱알이 발가농고 자유조소한것은 당시 화단에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신윤복이 뛰어난 화가였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전해지는것이 없는것은 바로 그의 그림이 봉건사대부들의 비위를 거슬린것과 관련되어있다. 신윤복은 인물풍속화에 있어서 뿐아니라 산수, 날짐승그림에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신윤복은 현실에서 창작의 원천을 찾고 모순에 찬 봉건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함으로써 조선회화사발전에서 크게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인물 풍속화 《주막》 (신윤복 작)

정확한 소묘에 기초하여 오묘가는 길손들이 드나들던 주막집의 정경을 부감형식의 구도, 간결한 선과 담백한 색채로 매우 실감있게 보여준 그림이다. 단정하게 차려지고 가마가 가지런히 걸려있는 부뚜막가에 앉은 손님들이

다음과 같다. 기본음식감으로 해삼을 준비한다. 생해삼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낸 다음 물에 씻어 식초를 두고 재운다. 식초에 재운 해삼을 길이는 그대로, 너비는 가늘게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 초간장에 다진 마늘과 채진 파, 소금을 조금 넣고 해삼접시와 함께 낸다.

본사기자

백두산지역을 조선의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백두산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공화국의 해당 부문 과학자들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조사와 연구과정에 백두산지역의 지질학적특성과 세계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론증하였으며 이 지역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할수 있는 학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네스코민족위원회는 2018년에 백두산지역을 조선의 첫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할것을

결정하고 유네스코의 절차규정에 따라 추천의향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호평받는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램

15세기에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고려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한 경험을 집대성하여 《의방유취》, 《동의보감》과 함께 우리 민족의 3대고려의학교전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향약집성방》이라는 유명한 의학책을 편찬하였다. 총 85권이라는 전서적인 규모로 편찬출판된 고려의학교전 《향약집성방》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약초와 약재들로 구성된 처방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별적인 고려약들에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까지 밝혀주어 누구나 약초를 알아보고 리용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중요한 약재들은 그 산지까지 밝혀주었다.

검색어에 의한 열람체계를 개발하였다. 하여 고려의학교전 《향약집성방》을 우리 민족의 재보로 영구보존하며 학술 및 의학사연구에 귀중한 사료를 제공해주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하성열부장과 검색열람부문을 구성한 고려의학교전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램은 《향약집성방》의 85권에 해당하는 원본과 번역문을 1:1 화상대응하여 동시에 열람할수 있다. 또한 고려의학전문에 따르는 병증과 치료처방을 종합체계화한 기초하여 고려약침방, 단방 및 민간료법, 침뜸치방, 개별고려약, 침혈 등을 검색하여 1만 4000여건의

검색자료를 구축해놓음으로써 누구나 열람검색 및 검색어에 의한 검색을 진행하여 필요한 내용을 열람할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 2000여건의 용어해설자료를 주었다. 열람속도가 종전의 250배에 달하는것으로 하여 그 실용성이 매우 큰 고려의학교전 《향약집성방》 열람프로그램은 지금 보건부문의 의료인들과 연구사들속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사화

리순신과 로인 (2)

글 박춘명, 그림 채대성

리순신의 행차는 한낮이 지나서야 이곳에 당도하였다. 《어른께 문안드리웁니다.》 길가에 늘어섰던 사람들은 일제히 두손을 땅에 짚고 허리를 굽혔다. 이윽까지 오는 사이에 벌써 여러번 이런 마중을 받았으나 매번 리순신은 가마에서 내려 정경에 마중나온 사람됨을 둘러보곤 하였다. 《무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마중하여주어 실로 고맙네.》 《황송하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갔다. 이때 갑자기 칠룡이라는 젊은이가 리순신앞에 한걸음 나와 부부하였다. 《통제사어른께 아뢰웁니다. 전라수군 칠룡이 빌을 받고져 대령하였읍니다.》 《별이러니 무슨 말인고?》 《소인이 원공통제사말에서 싸우다가 배를 깨뜨리고... 그러나 마땅히 군법으로 벌을 받아야 할줄로 아뢰오니...》

칠룡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순신은 그제야 알겠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그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황송하옵니다.》 이때 늙은 어부가 무릎 꿇음으로 그아도 말했다. 《이애가 소인의 아들이로소이다. 소인부자를 다 수군에 받아주시기 바라옵니이다.》 《젊은이는 받을수 있으나 늙은이아 무슨 힘으로 고달픈 군역을 감당해내겠고?》 《이 늙은 몸이 한생을 바다에서 살았으니 바다길에는 아직 젊은이보다 나은줄로 아뢰옵니이다.》 늙은이의 말은 절절하게 울렸다. 《그대 부자의 애국충정 기특하다. 내뒤로 그대들같은 사람들이 따라오니 함께 참군하라.》 장군의 행차뒤에는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서있었다. 그들부자는 리순신에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너무도 기뻐서 그들속으로 달려갔다.

(만일 우리 수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 저런 젊은이들에 의하여 얼마나 잘 싸우고있었는가?) 리순신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싸움에 한척 변변할수가 없었다. 이 모든것은 원군의 공명심과 당파싸움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리순신이 백의종군을 하게 된것은 1597년 1월이었다. 바다와 육지에서 무리로 녹아난 왜놈들은 1593년 6월부터 일시적인 휴전상태가 조성되자 강화담판을 한다고 하면서 1차침공에서 실패한것을 만회해보기 위한 술책을 다하였다. 왜놈들은 강화담판에서 오만하게도 총정, 전라, 경상도를 때려달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1597년 1월 다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였다. 이때 조정에서는 소서행장(고시사 유키나가)과 가동청정(가도 기요마사) 둘사이가 나뉘는것을 리용하여 그들을 더욱 분리시키어 가동

해삼회는 해삼을 날것으로 양념한 음식이다. 데쳐서 한것은 해삼숙회라고 한다. 해삼은 예로부터 전복, 섭조개와 함께 삼파(세가지 재물이나 돈)로 불리우는 값비싼 식품이었으며 해삼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 고급으로 알려주었다. 해삼을 잡아 물에 며칠간 담그면 간이 빠지는데 이것을 썰어서 회를 만들고 초

를 친다. 해삼은 인체에 정력증진, 항균, 면역력강화, 빈혈치료, 혈압낮춤 등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몸이 쇠약해졌을 때, 자주 앓을 때, 간염 때, 빈혈이 올 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때 회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해삼회를 만드는 방법은

해삼회

을 때, 자주 앓을 때, 간염 때, 빈혈이 올 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때 회를 만들어 먹으면 좋다. 해삼회를 만드는 방법은

본사기자



를 주장하기때문입니다. 그가 왜왜대군을 거느리고 인차 돌아왔는지 귀족의 수군으로 그를 해상에서 목을 지키고있다가 쳐죽여버린 전쟁은 중지될것이며 두 왕자도 다시 돌아오게 될것입니다. 《가동청정이 벌써 해안에

가동청정을 공격하여 죽일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리순신은 수군을 움직이지 않고 2~3일간을 지켰다. 《소시라는 다시 김용서를 찾아왔다.》 《가동청정이 벌써 해안에

접근했는데 어찌서 기회를 놓치지 않나?》 《소시라의 말을 듣고 김용서는 다시 조정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군을 내보낼것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되자 대간(사헌부, 사간원의 별칭)의 총칭은 서로 다투어가면서 왕에게 글을 올려 리순신이 인견을 지연시키고있는것은 나라에 죄를 범한것이라고 떠들어대며 엄함을 내리라고 하였다. 국왕은 자기의 측근자를 수군에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였으나 그자도 역시 원군의 당파이라 사실을 외곡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원공도 리순신이 왕명을 거역하여 출진하지 않는다고 참소를 올렸다. 이 사실인즉 적의 괴수 풍신수길의 조전의 수군을 없애지 않고는 조선침략의 뜻을 이룰수 없다는것을 알고 리순신휘하의 수군을 재능들의 수군에복원내에 유인하여 일격에 요정을 내기 위한 간계였던 것이다. 리순신은 가동청정을 치러 나가라는 왕명을 받고 운주당에서 열병진 사색하던 끝에 비록 자기 한몸이 역적의 루름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질망정 조선수군을 보존하였다는 결심밖에 막로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출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사기자

민요 - 《노들강변》

민요 《노들강변》은 다른 민요들에 비해 나온지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러나 이 민요가 오랜 민요들과 함께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는것은 가사에 담겨진 내용이 당대 사회의 지향을 잘 반영하고 민족적인 선물을 가사를 잘 안반침하고있기때문이다. 민요 《노들강변》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꽃같이 살아가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잘 반영되어있다. 가사에서는 강변의 봄버들을 두고 덧없이 흐르는 세월과 인생을 개관하기도 하고 백사장모래밭에 남긴 자욱들과 더불어 지난날을 더듬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당하던 수난과 고통의 감정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또한 나라없는 설움과 일

제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을 실고 두들실 흘려가라고 하소연하면서 보는 세상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가사의 내용은 독특한 시형식으로 되어있다. 민요의 가사에서는 행복한 새세상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의 현실같은 지향의 감정을 은유적수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사의 정서적내용은 아름답고 우아하면서도 보다 락천적인 정서로 일관된 선물형상에 의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 9/8박자로 된 민요 《노들강변》은 양산도장단의 가벼운 물동성과 연하고 부드러운 선물로 특징지어진다. 조선민요의 모토를 공부히 하여주는 민요 《노들강변》은 군중무용곡으로 되고있으며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본사기자

가사에서는 강변의 봄버들을 두고 덧없이 흐르는 세월과 인생을 개관하기도 하고 백사장모래밭에 남긴 자욱들과 더불어 지난날을 더듬기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당하던 수난과 고통의 감정을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또한 나라없는 설움과 일

본사기자

아들을 가르치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하다가 길바닥에 떨어져있는 장갑 한쌍을 보았다. 《애야, 사람이란 정직해야 한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며 장갑을 주어 길가의 돌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들이 한 50m를 갔을 때

폭같은 장갑 한쌍이 또 눈에 띄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는 제격 장갑을 주어 끼여보고나서 아들에게 말했다. 《애야, 빨리 뛰어가서 방금 돌의자에 놓고온것을 가져오너라!》